

봄맞이 광한루원 나들이 떠나자

남원시, '남원 맞춤 관광프로그램-광한루원 봄페스타' 내달 3~19일 운영

남원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17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봄맞이 관광프로그램 '2026 남원 맞춤 관광프로그램-광한루원 봄페스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광한루원 정문부터 완월정, 춘향관을 잇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 피크닉 프로그램 '광한루 OnePick크닉',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광한루원 The플리마켓',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어우러지는 '광한루원버스킹_개성점교'가 운영된다.

광한루OnePick크닉은 돗자리, 테이블,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광한루원의 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감성 사진 촬영 공간과 함께 야외 북 라운지(간이도서관)가 운영되어 휴식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행사 기간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화인당에서 한복을 대여한 방문객에게는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가 진행되어, 전통 한복과 광한루원의 봄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한루원 The 플리마켓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장터로, 핸드메이드 제품과 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광한루원 버스킹_개성점교'는 4월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 재즈밴드 ZIP4(집사), 창작국악밴드 김성근밴드, 남원시립국악단이 참여해 국악과 재즈,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 관광시설과(063-620-8924)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한루원을 단순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하고, 향후 봄·가을 시즌별 정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광한루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6 광한루원 봄페스타 포스터

춘분과 함께하는 '3월 문화가 있는 날'

전주시 어진박물관, 25일 '봄의 시작' 주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25일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봄의 시작'을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春分)에 대해 알아보고,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모양의 비누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오얏꽃 비누만들기 체험은 어진박물관 지하층 열린마당에서 진행되며, 후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은 어진박물관 지하층 야외마당에서 진행된다.

하계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박물관을 찾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춘분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에서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진박물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하며, 당일 경기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날 행사를 운영하며, 당일 경기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6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총 16개 과목에서 253명을 모집한다.

청출어람 정규과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반인 강좌로, 국악을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기초를 익힌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 중급과정, 단일과정, 체험수업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또한 수강생들은 교육과정을 마친 뒤 수료발표회를 통해 배운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정규과정은 초급 5개, 중급 6개, 단일 4개, 체험수업 1개로 구성해 초급은 국악에 처음



을 입문하는 사람 또는 기초과정을 익히는 사

람을 위한 과정으로, 대금·해금·가야금·한국무용·삼도설장구를 운영하고, 중급은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타 기관에서 초급과정을 수료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량을 가진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대금·해금·한국무용·영남농악가락·가야금병창·가야금을 개설했다.

단일과정은 초급·중급 구분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민요·교방(소리북 장단)·아쟁·판소리를 운영한다.

또한 체험수업 '소리북 만들기'로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8주 과정으로 운영해 전통 소리북만들기와 실습을 진행한다.

정규과정 교육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27주 과정으로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내 연습실이며,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완주 산업단지 일대에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품인 '완주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 시승식 및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완주 XR하이로드스마트버스시승식 성료

완주문화재단, 산업·문화·관광 잇는 실감형 XR 콘텐츠 첫 공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21일 완주 산업단지 일대에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품인 '완주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 시승식 및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승식은 버스 창문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확장현실(XR) 기술을 통해, 일상의 이동 공간을 몰입형 콘텐츠 공간으로 전환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는 XR 기술 구현 과정을 소개하는 결과보고와 실제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운행으로 구성됐으며, 산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10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개된 스마트버스는 창밖 실경 위에 완주의 산업, 역사, 관광 자원을 결합한 실감형 그래픽을 구현해, 이동 중에도 지역의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무브네스, 비나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현장 구간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산업 스토리가 XR 콘텐츠로 연출되어 현장감과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총 6회에 걸친 시운행 동안 탑승객들은 투명 디스플레이와 실제 풍경이 결합된 새로운 경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21일 완주 산업단지 일대에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품인 '완주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 시승식 및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승식은 버스 창문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확장현실(XR) 기술을 통해, 일상의 이동 공간을 몰입형 콘텐츠 공간으로 전환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는 XR 기술 구현 과정을 소개하는 결과보고와 실제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운행으로 구성됐으며, 산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10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개된 스마트버스는 창밖 실경 위에 완주의 산업, 역사, 관광 자원을 결합한 실감형 그래픽을 구현해, 이동 중에도 지역의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무브네스, 비나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현장 구간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산업 스토리가 XR 콘텐츠로 연출되어 현장감과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총 6회에 걸친 시운행 동안 탑승객들은 투명 디스플레이와 실제 풍경이 결합된 새로운 경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5월 21일 '음!하하하 교과서 음악회'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회 기획연주회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명근 삼미지휘자의 지휘와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과서 음악회'라는 컨셉에 맞추어 1교시-악기탐구, 2교시-라이브 페인팅, 3교시-유쾌한 성악, 4교시-하모니로 구성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브리 모음곡',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알라딘' 삽입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로 꾸며진다. 특히 아트퍼포머 김흥남과 마립바 연주자 김하영이 협연자로 나서 음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 연령은 5세 이상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공연 예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